

모자람이 행복의 뿌리?



신 세 철 의
쉬운 경제

지난 연말 여의도 금융회사 창구에서 노신사가 수십 개의 통장을 차례로 내밀면서 긴장하며 무엇인가 불안해하였다. 그 얼마 전 허름하게 차린 이가 푼돈(?)을 저금하면서 얼굴을 미소를 지으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도 흐뭇했던 장면과 대조적이었다. 사실, 무엇이든 마음대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유토피아에서는 만족을 느낄 수 있고 자칫 권태를 느끼기 쉽다. 모자람을 채워가려는 신선한 의지와 당당한 도전보다 더 중요한 무엇이 있을까? 플라톤은 '행복의 5가지 조건'에서 인간이 욕망하는 무엇들이 조금은 모자라는 듯해야 행복하다고 하였다. 재물, 명예, 재능, 용모, 체력 등을 추구하는 과정이 모두 다 가지기보다 더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뜻이였다.

생각건대, 사람 사는 세상에서 진리가 무엇인지 헤아리기 어렵듯이 완벽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지인들 사이에도 완벽을 추구하는 척하는 인사를 만나면 금방 피곤해져 피하고 싶다. 사실, 모자라면 아쉽지만 넘치면 만족감보다도 피로감이 넘친다고 한다. 쾌청한 날씨를 좋아하면서도 구름 한 점 없이 맑기만 한 날씨가 오래 계속되면 웬일인지 비와 바람을 기다린다. 가뭄 끝에 단비가 내리면 두 팔을 벌려 비를 받아들이며 반가워하지만 며칠만 계속내리면 다시 푸른 하늘을 그리워한다. 인생살이 쉬지 않고 겪어야 하는 희로애락도 마찬가지다. 변화도 없고 새롭게 도전할 건너기를 찾지 못할 때 인간은 의지가 약해지고 성취감도 느끼지 못한다.

칸트도 그리고 니체도 수차례 강조하였듯이, 어릴 때부터 무엇인가 선의지(善意志)를 지니면 지성이 발달하고 변화에 대한 적응능력을 높인다고 한다. 베풀려는 마음은 혼자만이 아니라 세상을 더 멀리

더 따뜻하게 만들기 때문이라 이해할 수 있다. 사실, 선의지가 없으면 지식, 재산, 권력이 공동체에 혼란과 해악을 끼치다가 급기야는 자신도 망가지는 광경을 수시로 목격할 수 있다. 누구나 나름대로 가진 능력을 오남용하다가는 급기야는 제 몇 에스로 걸려들기 마련이다.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눈길이 자주 가는 대목은 "만족할 줄 알면 욕되지 않고, 그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知足不辱 知止不殆. 노자, 도덕경44장)"는 교훈이다. 말할 나위도 없이, 세상사 크고 작은 화근은 모두 만족을 모르는 데서 시작된다. 물론 사단칠정에 시달리는 인간으로서 욕망으로부터 벗어나기란 그리 쉽지 않다. 개인적으로 감히 등대지기가 되어 먼 바다를 보며 시를 읽고 싶었으나 그 거룩한(?) 꿈을 이루지 못했다. 멋진 등대를 찾아 키웨스트까지 갔었지만, 등대 근처에 가면 지금도 가슴이 설렌다.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해매는 까닭은 아직 살아 있다는 증거인지 모르겠다.

/경제칼럼니스트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이 먼저



기자 수첩
양 성 운
(산업부)

"단독주택이나 별도 충전 공간이 있으면 (전기차) 추천합니다."

올해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인 전기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다양한 전동화 모델을 출시한다. 국내 자동차 시장은 어느때보다 다양한 브랜드의 신형 전기차의 출시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충전 인프라 등을 고려하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최근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전기차 구매하고 싶은데 괜찮을까?" "어떤 전기차를 구매하는게 좋을까?" 등이다. 불과 5년전인 2017년 테슬라가 국내 매장을 오픈하고 전기차 판매를 시작할 때만 해도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 신뢰는 높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출시와 배터리 기술 개발에 따른 주행거리 확대 등으로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는 소비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차 구매는 아직 이르다는 생각이 든다. 단독주택이나 회사 주차장 등 편안하게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전기차를 추천하고 싶지만 가구 주택이나 빌라, 아파트 등 충전 공간을 완벽하게 확보하지 않았다면 '글쎄'라는 답변을 내놓고 있다.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매년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충전 인프라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만약 전기차 판매가 늘어날 경우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기차를 충전하면 새벽에도 다른 운전자의 충전을 위해 자신의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해줘야 하는 번거로운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아파트 충전소음을 넘어 충전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

실제 지난해 국내 판매된 전기차는 10만 402대로 전년 대비 5만 3725대가 늘어났으며 증감률은 115%에 육박했다. 이같은 성장세는 올해 더욱 기파를 것으로 보인다. /ysw@metroseoul.co.kr

현대차·기아, 한국지엠 등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잇따라 신형 전기차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국내 전기차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스웨덴 전기차회사 폴스타와 수입차 브랜드들도 다양한 성능의 전기차를 출시한다.

문제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신형 모델을 내놓고 있지만 충전 인프라는 더디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전기차 100대당 주요국의 전기차 충전기 수는 영국이 318.5기, 독일 230.4기, 미국은 185.3기, 일본은 153.1기였다. 반면 한국은 100대당 50.1기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 다른 걸림돌은 전기모터와 배터리 가격이다. 기존 내연기관차의 부품보다 여전히 비싼 몸값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차 부품 고장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 부담은 예상보다 많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완성차 브랜드는 단순히 신차를 출시하기 보단 소비자들이 차량 구매 후 안정적인 충전 인프라 구축과 서비스 센터 운영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할 것이다. 한번 돌아선 소비자 마음을 돌려세우기 쉽지 않다.

/ysw@metroseoul.co.kr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풀이방법
4x3 스도쿠는 가로, 세로, 4x3 박스에 1부터 9 ABC의 문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부동호 스도쿠는 가로, 세로, 3x3 박스에 1부터 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정답

8	9	5	7	6	1	2	3	4
6	1	3	2	5	4	7	8	9
4	2	7	9	3	8	1	6	5
1	3	6	4	7	9	5	2	8
2	5	4	1	8	3	9	7	6
9	7	8	5	2	6	3	4	1
7	6	1	8	9	2	4	5	3
5	8	9	3	4	7	6	1	2
3	4	2	6	1	5	8	9	7

2	5	3	6	8	9	4	1	7
1	4	6	2	7	5	8	9	3
7	8	9	3	1	9	7	2	8
6	3	4	1	9	7	2	8	5
9	7	5	8	2	3	1	6	4
8	1	2	5	4	6	3	7	9
5	2	8	9	3	1	7	4	6
4	9	1	7	6	2	5	3	8
3	6	7	4	5	8	9	2	1

고민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

오늘의 운세

1월 17일 (음 12월 15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세상의 어려움을 겪으니 행운이 기다린다. 48년생 일궈놓은 만큼 성과도 좋다.
60년생 주식이 오른 만큼 빼내거나 내 돈이다. 72년생 배짱은 크게 갖되 주의는 세심하게 하도록. 84년생 금여가 적어도 보람으로 미래를 발전시켜라.



37년생 진귀한 음식을 대접받는 날. 49년생 가족 간의 금전거래는 불편을 가져올 터.
61년생 제3의 이성유혹을 넘어서야 아름다운 결과를 얻게 된다. 73년생 학교 선배가 나를 돋는다. 85년생 바람이 불어대니 어디로 갈 곳을 모른다.



38년생 병법상의 최선책이 삼십육계라는데. 50년생 양손의 떡 중 하나는 양보해야.
62년생 젊은 후배를 상갓집에서 만난다. 74년생 능력이 없으면서 기대는 너무 크니 실망도 따른다. 86년생 콩심은 빙그레 뿐만 아니라 대로 거둔다는 속담.



39년생 세 사람이 일을 행할 때는 반드시 스승으로 배울만한 사람이 있다. 51년생 능력 이상의 일을 무난히 해결할. 63년생 질투는 악마. 75년생 기회가 오니 판단력도 필요. 87년생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이직타령 해봐야 알아주는 곳 없다.



40년생 비를 맞은 개처럼 궁상맞다. 52년생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어머니 사랑.
64년생 그물에 잡힌 물고기 신세처럼 답답. 76년생 일취월장의 기회가 있으니 도전 한다. 88년생 만나던 연인이 눈에서 멀어지니 끝내 아픔으로 이어진다.



41년생 부모님이 그리워도 별 수 없으니 산소라도 찾자. 53년생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65년생 대대로 행한 적선이 복으로 돌아온다. 77년생 나의 특기를 따라온 자가 없으나 더 노력. 89년생 실속은 없으나 내일을 위해 축적.



42년생 밖으로 나가보니 세상이 너무도 변해간다. 54년생 글을 읽은 집을 일으키는 근본이라 했다. 66년생 밀거나 말거나 남의 뒷얘기 하지 않도록. 78년생 부조화는 불안정을 부른다. 90년생 선택에는 평가받아야 할 책임이 따른다.



43년생 윗물이 흐리면 아랫물도 흐린다. 55년생 아직 시간은 있으니 독신보다는 가정을 이루도록. 67년생 표리부동은 결국에 내 흠도 드러난다. 79년생 슬픔을 딛고 발로 뛰는 일을 찾아보자. 91년생 명상으로 돌아켜보는 시간을 갖도록.



44년생 어려운 일이 오히려 해결. 56년생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마라.
68년생 바람이 불어도 기본은 흔들리지 말자. 80년생 내 손 밑에 가시가 제일 아픈 법.
92년생 간절한 기도는 절망을 희망으로 어려운 일도 가능하게 바꾼다.



45년생 모아둔 돈은 없으나 산 입에 거미줄 치라. 57년생 생각은 그림처럼 아름다우나 비현실. 69년생 재훈할 때가 아니니 시간을 가져보자. 81년생 이자에 관한 생각을 바꿔보면 길이 보인다. 93년생 사람은 누구에게든 의지하고 싶어 한다.



46년생 달걀을 쌓은 것처럼 위대로우니 투자는 금물. 58년생 세상에는 수없는 시연이 많은 법. 70년생 가뭄에 단비가 내린다. 82년생 지난간 인연이 찾아오니 병황이 시작. 94년생 나와 남은 생각의 사고방식이 다르니 여러 각도로 바라볼 것.



47년생 죽은 후에는 좋은 악이 무슨 소용. 59년생 사춘의 자식 고뇌를 보며 무자식 상팔자를 실감. 71년생 명예는 나를 지켜주는 힘. 83년생 신념이 없다면 자신이 추구하는 행복은 또 다른 목마를. 95년생 혁신이 모든 이치에 맞는 것은 아니다.



김상회의四季

두려워 말자

동양의 명리학(命理學)에서는 마무리를 하는 10이라는 숫자를 중요히 여겼다. 명리를 일부는 귀로 들은 것을 남에게 얘기하는 식의 학문 즉 구이지학(口耳之學)이라고도 했다. 어느 학문이든 학문의 초기에는 듣고 보고하면서 익숙해지다가 체계화되는 것 아니겠는가. 여하튼 육십갑자에서는 10단위를 순이라 한다. 갑자 순으로부터 10뒤에는 갑인 순 이런 순차로 동지를 지나 입춘을 기점으로 다시 새해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된다.

명학은 동양의 예측술 즉 예측이라는 여러 가지 기법 중에 가장 효용이 큰 분야로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정명론에서 변화시킬 수 없는 틀 안에 있다. 여기서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간다면 우리가 굳이 미래를 알 필요가 있겠는가에 의문이 들것이다. 이에 소견을 밝혀본다면 사람은 다 불안한 존재이며 불안함의 근원에는 생로병사 죽음과 돈에 대한 현실에서의 공포와 불안감을 벗어나기 위해서 운명예측을 진단해 보는 것이리라. 종교에서는 어떤 내세관을 내세워서 선업을 쌓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으로 간다고 한다. 특히나 불가에서는 윤회론에 입각하여 죽는다는 것도 삶의 연장이니 죽음에 대한 공포는 떨쳐 버릴 수 있다는 생각이다. 어떻게 하면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